

“5명의 ‘협동 코미디’ ... 관객들에 행복 배달”

영화 ‘극한직업’ 류승룡

류승룡(49)이 장기인 코믹연기로 돌아왔다. 지난해 1월 영화 ‘염력’에서 소시민 히어로 역을 맡아 슬랩스틱 코미디를 선보였다면, 오는 23일 개봉하는 ‘극한직업’에선 ‘협동 코미디’를 선보인다. 지난 14일 종로구 삼청동에서 마주한 류승룡은 인터뷰 내내 촬영 당시 즐거운 기억들을 쏟아냈다.

그는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부터 킁킁거리며 재미있게 봤다”면서 “내가 하고 싶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떠올렸다.

이병헌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극한직업’은 마약반 형사들이 범죄조직을 잡기 위해 치킨집을 위장 창업했다가 전국 맛집으로 떠오르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코믹 수사극.

류승룡은 마약반을 이끄는 ‘고반장’을 연기했다. 집에서는 아내에게, 직장에선 상사에게 구박받지만, 팀원들을 다독이는 따뜻한 반장 역할이다.

‘류승룡 표 코미디’는 이번에도 빛을 발한다. 그가 심각하게 수사 방향을 논하다가 갑자기 걸려온 주문 전화를 받고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를 읊조릴 때 객석은 웃음으로 들쭉인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좀비 액션도 선보인다. 12번이나 칼에 찔리고도 살아남아 ‘좀비 반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고반장의 끈질긴 생존력을 그만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류승룡의 개그 감각은 제법 타율이 높다. 그가 웃음 짙을 날리면 아니나, 진선규, 이동휘, 공명 등 마약반 팀원들이 주거나 받거나 하며 웃음 크기를 키운다.

류승룡은 “설계도가 견고해 거의 90% 이상 시나리오대로 연기했다”면서 “마약반 5명의 케미와 촘촘한 코믹망, 이병헌 감독 특유의 말맛이 살아있는 시나리오

마약수사반장 역 코믹연기
영화 촬영 현장 웃음바다

이 행복 그대로 전해졌으면

가 잘 어우러져 나온 결과물”이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류승룡은 함께 호흡을 맞춘 배우들에게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인생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친구들을 얻었다”라고도 했다.

“영화를 찍는 내내 너무 행복했어요. 아하니 씨는 모든 현장에서 리더 역할을 하며 배우들을 편안하게 이끌었죠. 이병헌 감독이 ‘무결점이 결점인 배우’라고 말했을 정도라니까요. 진선규 씨는 ‘이렇게 착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착한 친구입니다. 이동휘 씨는 감각이 뛰어난 친구예요. 시나리오상 자칫 밋밋할 수 있는 캐릭터인데, 중심을 잘 잡으며 자기 몫을 다했죠. 공명 씨는 별명이 ‘멍멍이’였는데, 몸과 마음이 건실한 친구입니다. 촬영 현장을 너무 즐거워했죠.”

현장에서 만행인 그는 후배들이 편안하게 연기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다.

“저는 가급적 말수는 줄이고, 때가 되면 후배들에게 차도 타주고, 지갑도 열었죠. 제가 편해야 후배들도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고집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팀워크는 긍정의 에너지가 돼 영화 속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난다.

서울예대 연극과를 졸업한 류승룡은 연극 무대를 누비다 영화로 옮긴 뒤 ‘최종병기 활’ (2011), ‘광해, 왕이 된 남자’ (2012), ‘7번방의 선물’ (2013), ‘명량’ (2014) 등을 잇달아 흥행시키며 ‘흥행 킹’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손님’ (2015)과 ‘도리화기’ (2015)와 지난해 개봉한 ‘염력’ 등 근작에선 쓴맛을 봤다.

그런 시간을 겪으며 자신을 갈고닦은 덕분인지 류승룡은 예전보다 한결 편안



해 보였다. 그는 수년 전 술과 담배를 끊고, 3년 전부터는 차(茶)의 세계에 빠졌다고 했다.

그는 “차를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무, 흙에도 관심을 갖게 됐고, 취미로 차 테이بل 등을 만들고 있다”며 “13개짜리 만들었다.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참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인생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중요한 것 같다”며 “때로는 되돌아보고 심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잘 쉬어야 양질의 일을 할 수 있고, 내

가 편해야 보는 사람도 편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어른의 의무’라는 책을 보면 말을 적게 하고, 잘난 척하지 말고, 항상 기본 좋은 상태를 유지하라고 돼 있어요. 웬만하면 다툼을 만들지 말고, 잘못하면 사과를 하고, 더불어 평안하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촬영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객 반응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행복하게 찍자고 배우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다들 이 말에 공감하고, 그것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영화 ‘악녀’, 미국 TV 시리즈로 재탄생

미드 ‘워킹데드’ 제작사

정병길 감독의 영화 ‘악녀’가 미국 TV 드라마로 재탄생한다.

배급사 뉴의 해외세일즈사 콘텐츠판다는 미국 스카이라이프 엔터테인먼트와 ‘악녀’의 TV 시리즈 제작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 드라마가 해외 드라마로 리메이크된 사례는 있었지만, 한국영화가 ‘미드’로 제작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린 시절부터 킬러로 길러진 여인 속희(김옥빈)의 파란만장한 삶을 다룬 액션 영화 ‘악녀’는 2017년 칸국제영화제 미드나이트 스크리닝에 초청돼 호평을 받았다.

미국 TV 시리즈 제목은 ‘빌러니스(villainess)’로, LA 비밀조직에서 살인 병기로 키워진 여인을 둘러싼 이야기를 다룬다. 각본과 캐스팅 등 프리 프로덕션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간다.

스카이라이프 엔터테인먼트는 2010년 시즌1부터 현재 방영 중인 시즌9까지 화제를 모은 미국 드라마 ‘워킹데드’의 제작사다.

이 회사는 “‘악녀’의 세계관을 확장해 스토리 넘치는 시리즈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영화 ‘악녀’ 김옥빈

말했다.

이 드라마 제작에 참여하는 정병길 감독은 “액션뿐만 아니라 연속성 있게 전개되는 스토리를 통해 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재미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성광, 운영 참여한 포차 선정성 논란에 사과

“다음달 영업 종료하겠다”

개그맨 박성광이 자신이 운영에 참여한 포차가 선정적으로 매뉴판을 만들어 사업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사과했다.

박성광 소속사 SM C&C는 15일 “박성광은 2년 전 지인이 제안한 사업 ‘박성광의 풍기물란’에 자신의 성명권 사용을 허락하고 홍보에 한해 운영에 참여해왔다”며 “지인이 사업체 기획과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해왔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이어 “해당 가게는 작년 12월

영업 종료를 결정했고 정리 수순을 거쳐 오는 2월 종료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성광이 자신의 이름을 건 가게에 대해 신중하게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해당 사안들로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최근 이 포차는 선정적인 내온사인 문구와 매뉴판으로 온라인에서 비판받았다. 특히 매뉴판에 불법 유통되는 성인 동영상 파일 형식으로 쓰인 메뉴 소개가 문제가 됐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5 세계 최고를 찾아라 스페셜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차달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5 930 MBC 뉴스 50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왜그래 풍상씨(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붉은 달 푸른 해(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테마스페셜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의별 중계 50 다큐 공감(재)	00 옥탑방의 문제아들(재)	35 김신영의 TMI 언더나인틴(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4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0 전국노래자랑(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꼬마돌 도도 2 55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3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40 기억. 록 100년을 탐험하다 55 5 MBC 뉴스	00 SBS 스페셜(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스페이스 벅스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15 실화탐사대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백종원의 골목식당(재)
[7]	00 KBS 뉴스 7 40 미니다Q	50 원손잡이 아내	10 용왕님 보우하사 55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아리렀다 30 생방송 TV블로그 쏘지락
[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비켜라 윤영아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실화탐사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경제발굴단
[9]	00 KBS 뉴스9 55 나.의 독립 영웅 (후세 다쓰지)			
[10]	00 시사토론 '10' 55 UHD 숨터	00 왜그래 풍상씨	00 붉은 달 푸른 해	00 황후의 품격 모아보기
[11]	00 오늘밤 김제동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옥탑방의 문제아들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종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5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우간다 르웬조리트레일 방하> 06:00 한국기행(재) <관찰아. 겨울이야 3부 못생겨도 맛은 좋아>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융감한 소방차 레이 07:30 꼬마버스 타요 08:00 댕동댕 유치원1~2 08:30 미니특공대 X 08:45 알랄라 뿌우 09:00 엄마 까투리 09:30 원다볼츠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김자반과 김장아찌 & 대추차>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청오뉴스 12:10 EBS 초대석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3:40 우리 가족 거리 출하기-부모성적표 14:30 코코몽3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15:15 출돌! 피자마 삼총사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15 융감한 소방차 레이 16:30 알랄라 뿌우(재) 16:45 댕동댕 유치원1~2(재) 17:15 엄마 까투리	17:30 꼬마버스 타요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5 19:00 피피루 안전특공대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화산섬의 비밀 19:30 EBS 뉴스 19:50 특집다큐 <광화문 광장, 도시의 심장을 바꾸다> 20:40 세계테마기행 <기타치고 구석구석, 우리가 몰랐던 일본 3부 휴(休), 쉬어가다-아오모리> 21:30 한국기행 <아쿠아기행2 3부 슬기로운 아쿠아 생활>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극한직업 23:55 EBS 초대석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16일(음 12월 11일 癸丑)
子	36년생 목표만을 향해 정진하는 것이 옳다. 48년생 해묵은 일이 가닥이 잡힌다. 60년생 변화무쌍한 성국이니 순발력이 절실 하느니라. 72년생 이제는 전후좌우의 정황을 살피면서 숨고르기를 해야 할 때다. 84년생 접해보지 못했던 것을 맞이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82, 93	42년생 자신감을 갖고 확실하게 실행하라. 54년생 마음을 비우고 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66년생 지극히 사소한 것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78년생 심신을 안정시키면 서 진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90년생 피치 못해서 변경해야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행운의 숫자 : 81, 44
丑	37년생 지난날의 은원은 차치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다. 49년생 새로운 것이 항상 좋지만은 않는 법이다. 61년생 수준에 맞지 않는다면 집이 될 수 있다. 73년생 이면의 처지와 환경도 살피는 것이 적당하다. 85년생 경시한다면 큰 코 다친다. 행운의 숫자 : 32, 64	43년생 잠재적인 위상까지 인식하고 언행 하라. 55년생 상태를 파악하고 임한다면 절반은 이룬 셈이다. 67년생 여러 가지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맹점을 드러낼 수 있다. 79년생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91년생 부분적인 곳에 집착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83, 85
寅	38년생 새로운 것을 접하더라도 초심을 잃지 말라. 50년생 납득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62년생 벗어나려는 노력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제자리걸음만 하게 된다. 74년생 즉시 받아들이도록 해야겠다. 86년생 열린 시각으로 살펴야 제대로 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8, 74	44년생 순탄하다. 56년생 복전에서 실제로 드러날 수 있다. 68년생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대성할 수 있다. 80년생 그동안 비밀에 싸여 있었던 것의 궁극증을 해소할 수 있겠다. 92년생 어떠한 국량이라 해도 핵심적인 것을 놓쳐서는 아니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37, 09
卯	39년생 깊이 있는 인식의 계기가 될 것이다. 51년생 쉽게 이해하기 힘든 일이 생긴다. 63년생 현실로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75년생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파격이 아쉽다. 87년생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완전히 폐기 처분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87, 73	45년생 줄어드는 듯하다가 증폭 될 것이다. 57년생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로 바쁘겠다. 69년생 성사시킬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된다. 81년생 직함하므로 그대로 유지하며 진행해도 되겠다. 93년생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면 크게 낭패를 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74, 89
辰	40년생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52년생 지속 가능해야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 64년생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실행은 신속히 하라. 76년생 개별적인 취사가 아니라 포괄적인 함유가 유용하다. 88년생 전후 간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리라. 행운의 숫자 : 97, 13	34년생 지체 없이 실행하는 것이 무난하다. 46년생 후유증이 오래 갈 수도 있다. 58년생 전혀 새로운 분야를 접하게 될 것이다. 70년생 상당한 재산이 들어오거나 영광스러운 일이 보인다. 82년생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차질이 없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45, 11
巳	41년생 함께하면서 변화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낫다. 53년생 마음이 불명하게 되어 있다. 65년생 표리가 완벽하게 일치해야만 탈이 없다. 77년생 형국에 영향을 줄만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리라. 89년생 형세를 타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다. 행운의 숫자 : 43, 45	35년생 지금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 47년생 내심과 표면상의 명분은 명확하게 구분하자. 59년생 함께하는 과정에서 차질을 빚지 아니 하도록 하자. 71년생 팔십은데 팔 나고 풍 심은 데 풍 난다. 83년생 활동 방안을 모색한다면 이익이 따른다. 행운의 숫자 : 72, 40